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정의로운 대한민국

10월 12일, 내일부터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이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3기 민주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5월 9일 선거로 당선되고 정권 인수기간도 없이 당선 이틀날,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강공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다.

시대엔 사회적인 혼선과 정신적인 혼란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잘라내는 수술은 아플 수도 있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저항과 반발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취임 초 84% 고공 국민 지지를 받다가 인사 청문회와 안보 문제로 지금은 64%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24%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새삼스럽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 정부는 촛불민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촛불민심, 촛불혁명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촛불민심,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이다.

촛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와 비리, 국가권력의 사유화(私有化)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피맺힌 항쟁이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성공한 민주 혁명이었다. 적폐는 수심만 명에서 많게는 2백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인 20차에 걸친 집회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집회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을 해 내느냐, 못 해 내느냐에 따라서 여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나도 20차 촛불집회에 개근(奮勤)으로 모두 참석했지만, 영하 몇 도로 내려간 추운 겨울밤에도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언 손을 호호 불며 깃발을 들고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 잠시 앉아 있기도 하고, 거리를 행진하면 모습은 눈물겨웠다. 현장에 참가하지 않고 현장을 보지 않은 자는 입을 다물라.

이제 거대한 태풍 같은 바다를 뒤집어 놓은 듯한 해일(海益) 같은 선한 촛불민심을 아직도 모르고 세치 혀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정치보복이라고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촛불민심을 거스른다면,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받았으면,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자유한국당도 탄핵 받은 정당이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후 자유한국당은 말장난

이나 잔피 부리지 말고 해산하고, 19대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했다.

대역 죄인들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적당히 정치쇼나 하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노이즈 마케팅이나 하면서 반격과 역습을 시도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등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가 핵심 기관을 동원하여 정치개입, 정치사찰, 대통령 선거 개입을 하고도 부족해서 인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시키려고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니 그저 어안이 빙방할 뿐이다. 그 최악의 끝은 어디인가.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임무요,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오직 국민들의 한 맺힌 뜻을 받들어서 거침없이 적폐청산에 일로 매진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간절한 국민의 뜻을 알고 있기에 적폐청산에는 동조하고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폐청산은 누적된 잘못된 비리와 폐단을 되돌리고 바로잡는 법과 원칙과 상식의 적용이다.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중대한 일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깨어있는 국민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적폐청산을 밀고 나가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또한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社說

대포차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포차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관계당국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이어 10일부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목자동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니 기대를 걸어본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불법명목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납부자동차 등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을 펼쳐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여 건으로 7.8% 증가한 수치다. 무단방치가 2만3000대, 무등록 1만대, 불법명목의 2000대, 정기검사 미필 3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000대, 지방세납부 9만1000대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해 운행차 처벌근거를 마련해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3만8929대의 차량이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됐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9995대의 차량이 원해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토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의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운전자들이나 국민들도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 하루빨리 대포차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鉅野洞庭

鉅野洞庭

▷ 뜻: 기야(鉅野)는 태산(泰山) 동편에 있는 광야(廣野), 동천(洞淵)은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중국(中國) 제1(第一)의 호수(湖水)임.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김영우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장



마지막세대

흔히 베이비부머세대를 가리켜 조상을 기리고 생존부담을 보살피고 효도를 하며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반대로 자신은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마지막세대라고 들 한다. 효도를 받지 못하면 서도 부모에 이어 자식까지 부양해야 하는 짐 또한 지고 살아가는 세대다. 지금 베이비부머세대는 한국전쟁이후 가난했지만 부모님들의 다산으로 많은 형제·자매를 가졌던 세대이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도시로 발길을 돌리면서 산업화과정에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던 희생양이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의 희생이 밑거름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대열에 올랐지만 베이비부머세대의 종착역은 준비되지 않은 사회로 내쫓기듯 내몰리면서 내일이 없는 암울한 세대가 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으로 자식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 생활비라도 해결하려고 일자리를 기웃거리면 젊은이들 일자리를 넘보는 파렴치

한으로 여문에 매도당하는 세대다. 베이비부머세대인 나는 얼마 전 연중행사인 추석맞이 벌초를 혼자 했다. 촌놈이지만 해마다 혼자 하는 벌초가 커다란 부담이다. 나보다 멀리서 생활하는 동생들이 있지만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제사도 혼자 모실 때가 다반사고 모처럼 일정이 맞아서 시제라도 참석하면 과거 딱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길게 줄을 서야만 했던 것은 아득한 추억이고 이제는 제복입고 술잔 올릴 사람이 모자랄 정도로 세대는 바뀌었다.

물론 모든 집안,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구동성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이후 없어질 문화와 전통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조상에 의하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 인구는 약 720만이며 개인별 부채는 3600만원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은 월 17만원, 보유자산 중 83%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가 58.9%였으며, 자영업자

로 희망을 기대했던 63%가 폐업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해야만 하는 세대다.

또 다른 불행한 마지막세대가 있다. IMF이후부터 최악의 실업률에 오갈 데 없는 청년세대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회는 최악의 실업률에 따른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성장세 일주의 앞에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했던 정부정책과 기업문화에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공과 일 자리의 불일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으로 양극화를 초래했던 것이 문제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을 더 괴롭히는 이유는 노동집약산업의 구조적 저임금고용산업을 정부정책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저개발국가로 방향전환하는데 목인한 부분이다. 그나마 남은 틈새시장마저 농수산업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했다. 팬

찮은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다지고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구조다.

한편 통계청은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1분기 출생인구가 11만 2천 600명이었는데 반해 올해 같은 기간 9만 8천 900명으로 12.2%나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20세 남아인구 36만 명이 2023년이면 2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5년 3,744만 명의 생산가능 인구는 2065년이면 2,062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 60만 명의 신생아가 출산할 것을 기준으로 설립되었던 대학들도 올해 35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인구학을 찾아야 될 지경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는 해마다 대학을 나오는 50만 명중 절반밖에 흡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도 일자리우선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인상, 조기퇴직감소(정년연장), 비정규직정규직전환과 같은 여파가 민간기업 채용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렇듯 청년과 베이비부머세대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경험하기 어려운 마지막세대를 운명처럼 같이 하고 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